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키세스와 어묵

선거가 끝났다. 오랜 고통의 종말을 알리는 새 시대가 오길 바란다. 지난 일이나 몇 가지 후회가 밀려든다. 저 내란 정국에 요리사로서, 한 시민으로서 할 일을 더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다. 은박지로 된 세모꼴 초콜릿에서 따온 키세스 신화를 아실 것이다. 그 공포의 추위와 눈발을 받고 시민들이, 방한용품도 없이 한 겹은 박지 같은 갈개를 둘러쓰고 연좌농성을 하던 장면 말이다. 그때 어묵 리어카라도 만들어서 현장에 갖어야 했다. 뜨거운 국물을 나눠야 했다. 그러지 못했다. 그저 빵 봉지를 들고 가서 나누었을 뿐이었다.

는 것이었다.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그런 현장을 만드는 건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진정성이 있느냐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했다. 딱 한 마디로 답했다.

“먹는 건 좋은 일인데, 과연 어묵과 떡볶이 값은 알고 나하는 걸까요.”
방송을 본 많은 지인들이 좋은 답이었다고 칭찬했다. 디테일에서 정치가 시작된다. 공감이 정치라는 뜻이다. 본디 부자로 자라서 거리에서 그런 ‘불량식품’(예전에는 이런 음식을 그리 불렀고 특하면 단속을 했다)을 안 먹고 자랐다면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 하겠다면 알아야 한다. 공감과 이해는 접점이 있어야 생긴다. 안아보고 접촉하면서 발생한다. 어묵 국물의 온도를 모르고, 한겨울 서서 먹는 포장마차의 국물 한 입의 온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미래를 맡기고 싶다. 그게 사람의 정서다. 다행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왕년에 내 친구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에서 당보 만드는 일을 했다. 매일 아침 당무회의에 참석해서 취재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은 보고 DJ를 이해했다. 보통 뉴스에서는 정치적인 ‘현안’을 주로 다룬다. 정치적 메시지를 DJ의 입을 통해서 듣고 기록하고 보도한다. 목직한 정치적 주제를 말하는 DJ만 보아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근거리에서 DJ를 보았던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좀 놀랐다.

“뉴스에는 그런 내용이 나가지. 현대 실제로는 살림에 관한 게 대부분이야. 그때 무슨 돈이 있었어, 야당이. 쪼들리지. 야당 도왔다고 기업이 사라졌던 시대인데. 그러니 선생님(김대중총재)은 회사 운영하듯이 회계를 따지더라고. 말단 당무직원 한 명의 퇴직금이 라거나, 전기세 끝자리 몇 원까지 다 따져. 어찌 보면 뭘 저런 것까지 다 보시나 싶었지. 그게 아니야 나중에 같이 이미지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였다. 사진 속의 시민들은 극단의 추위에서도 낙관을 잊지 않고 있었

다.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어묵 리어카든 밥차는 끌고 가고자 한다. 그 약속을 드린다.

<음식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안 중 모
조선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노화에 따른 구강질환

하는 분들이 많아 구강건조증은 흔히 발생하는 구강질환이다. 또한 타액이 부족하면 연하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틀니사용 시 불편감과 다양한 구강질환이 동반된다.

노화에 따른 미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나 구강질환과 관련된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구강점막도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고 탄성이 감소되어 다양한 점막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음식 섭취시 많은 불편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년기에는 구강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구강 내 궤양과 같은 병소가 오래 간다면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노년기에 발생되는 구강안면 통증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일이다. 치아, 치주, 구강점막에서 발생되는 구강내 원인의 통증도 빈발하지만 턱관절과 저작근장애, 구강작열감증후군, 삼차신경통과 같은 신경병성 통증도 흔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며 통증 조절을 위해 다수 의료진의 참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턱관절부위의 근육과 인대는 나이의 변화에 따라 손상을 받기가 쉬워 단단한 음식섭취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 악물기 습관의 조절이 필요하다. 뇌신경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삼차신경통은 노년기가 되면서 발생이 증가되나 편측성,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강한 통증의 임상증상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진단이 어렵고 전문분야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 구강 안면부위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작열감 증상을 나타내는 부위에 특별한 조직 변화가 없으면서 혀나 구강점막에 타는 듯한 통증을 나타내는데 주로 중년 이상의 완경기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구강캔디다중과 같은 국소적인 원인과 철결핍증, 악성빈혈, 호르몬 이상 등의 전신적 원인이 있으며 특별한 원인요소가 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완경기 여성에서 우울증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노년기에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치과 검진을 받아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여 혀를 포함한 치아 및 잇몸을 닦고 구강내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한 잦은 섭취가 필요하다.

틀니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일 세척하고 틀니세정제를 사용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며 구강 점막에 상처나 감염이 있는지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과도한 흡연과 음주는 많은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고 치주질환 및 구강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강내 감염은 심혈관질환, 당뇨병뿐만 아니라 폐렴 등 전신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통하여 노년기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타인능해(他人能解)의 정신이 안겨 준 교훈

는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곡식이 맞섬(200kg) 들어가는 커다란 뒤주를 두고 곡식을 꺼낼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그 위에 '타인능해'라고 적어 두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운조루에서 곡식을 먹을 만큼 꺼내가라는 표시였다.

류이주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눔의 미덕을 가르쳤고 타인능해 뒤주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피라고 일러두었다. 받은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이 뒤주가 있는 곳에는 안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바로 가난한 자의 등불 즉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정신을 발휘하였다고 본다.

이곳은 격변의 시기를 보낸 곳이었다. 1894년 동학혁명 때는 가난한 백성들의 항쟁이, 1948년 여순사건 때는 이념으로 대립했다. 흔히 지주들은 소작인에게 착취와 수탈을 강요했지만 운조루는 나눔과 분배의 타인능해 정신으로 생활한 덕분엔 변란에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운조루 주변 백성들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쳐어도 운조루에서 배운 타인능해의 넉넉한 인심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생겼을 것이다.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운조루의 굴뚝이다. 운조루에는 울타리 높이 이상으로 쌓아올린 굴뚝이 없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게 섬돌 아래에 숨어 있었다. 쌀 등의 곡식이 없어서 끼니를 이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밥 짓는 연기는 얼마나 부러운 일이며 배가 더 고프게 만드는 일인가에 연기가 울타리 너머로 멀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배려였다.

타인능해의 정신은 대대로 문화 류씨 종손에게 이어지면서 2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옛 선인들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일깨워준 또 한 예로 경주 최부잣집이 있다. 경주 최부잣집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 오랜 기간 청승을 받아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굶어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가지고 있어 무엇하겠느냐, 모든 굶는 이들에게 굶어 먹여도록 하라. 그리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라”고 하였으며 큰 술에선 매일같이 음식을 끓였고, 인근은 물론 멀리서도 굶어죽을 지경이 된 어려운 이들이 소문을 듣고 서로를 부축하며 최부잣집을 찾아 몰려들었다. 흉년이 들면 경주 인근의 주린 자들은 최부잣집을 찾았다. 이렇듯 최부잣집은 한 해에 소비되는 쌀의 3분의 1은 자신들이, 3분의 1은 과객의 접대에, 3분이 1은 빈민의 구휼에 힘을 썼다.

운조루의 '타인능해' 정신과 경주 고통 교촌택의 '지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의 정신은 우리가 있었던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일깨워준 좋은 본보기이며 교훈이다.

문화 류씨와 경주 최씨 후손들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마음가짐을 배울 때다. ‘좋은 일을 한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積善之家必有余慶)’란 옛 성인들의 배움의 철학을 이어받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오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됨을 알고 살아가면 좋겠다.

社說

대통합 대통령·실용정부 약속 꼭 실현하길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울림을 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향후 5년 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긴 내용으로 국민 주권주의, 민생 회복, 외교 안보, 성장과 분배 등 국민들의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준비된 대통령이란 기대감을 갖게 했다.

가장 큰 틀의 메시지는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는 것은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했다고 할 것이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위기를 극복해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정의로운 통합정부이자 유연한 실용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는 것은 그의 현실 인식을 잘 보여준다. 당장 추경부터 편성해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의미다. 통합과 화해에 방점을 두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물겠고 했는데 내란 청산을 위한 재발방지책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강조한 성장과 분배는 모순의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 전략은 실현하기 힘들지만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길인 만큼 꼭 성공하길 바란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입장에선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압도적 지지로 정권 교체 이뤄낸 호남의 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데는 호남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호남 유권자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겪은 지역민들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전국 1·2위인 광주(83.9%)와 전남(83.6%)의 높은 투표율과 전국 1·3위를 휩쓴 전남(85.87%), 광주(84.77%), 전북(82.65%)의 이 후보 지지율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49.42%인 1728만여 표를 얻어 41.15%인 1439만여 표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 289만여 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런

데 이 후보가 호남에서만 김 후보에 비해 273만여 표를 더 얻은 것을 감안하면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에다 박지원·정청래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골목골목을 누빈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새 정부와 여당은 특별한 책임감으로 호남에 응답하길 바란다.

무작정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AI 국가 시범도시,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솔라시도 분산에너지 특구 등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지역 현안 사업을 제대로 반영하고 인사에서도 능력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호남에 응답하는 길이다.

無等鼓

대한민국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시대(1948-1960년)부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뿌리내렸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1962-1979년)을 거치며 권한은 한층 강화됐다. 이러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결국 전두환(1980-1988년) 군사정권이라는 비극을 낳았고,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1987년 민주주의의 산고 끝에 탄생한 현행 헌법(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은 대통령 직선제를 명문화하고, 대통령 임기를 단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권력 집중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를 총괄하고 외교와 국방의 최고 책임자로 국가안보를 관장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거부권과 국가 긴급상황 시 긴급명령권 등 강력한 권한도 여전히 있다.

이러한 권한은 헌법 수호와 국민 통합, 국가안정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전제됐지만 원칙을 저버린 일부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은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이 빚은 대표 사례다. 특히 최근 윤석열의 계엄·탄핵 사태는 대통령 권한과 책임의 균형에 대해 전 국민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

지난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생 안정과 공정사회를 약속하며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에게는 당선과 동시에 계엄·탄핵정국 등으로 분열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고 정치적 혼란과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를 선택한 국민은 기대한다. 5년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3일, 여전히 국민의 굳건한 지지를 받는 '성공한 대통령 이재명'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박진표 경제부장 lucky@

기고



이 동 범
수필가·교육칼럼니스트

최근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이웃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

우리 선인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타인능해(他人能解) 즉 '누구나 열 수 있다'는 뜻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당신을 이해한다는 공감과 타인을 향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배어난다.

6월은 24절기 가운데 9번째 해당하는 망종(芒種)이 있는 달이다. 망종은 일 년 중 논보리나 벼 등 곡식의 씨를 뿌리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보리를 수확하며 굶주림의 시기였던 '보릿고개'를 살아서 넘기게 되는 것이다.

'보릿고개' 시기에 생각나는 곳이 있다. 바로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목조기와집 '운조루'이다. 조선 후기의 누정 운조루는 조선 영조 때 낙안 군수를 지낸 류이주가 영조 25년(1776)에 지었다. 고백 운조루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